



“부모님 대하듯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소화기질환에서 건강관리까지

서울한강속편한내과

전국 20여 속편한내과 네트워크의 대표원장이 인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새둥지를 틀었다. ‘서울한강속편한내과’는 소화기전문 내과의 명성을 바탕으로 ‘건강수명 10년 연장’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환자의 ‘믿음’을 강조하는 강동훈 원장과 서울한강속편한내과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글_ 이수현 기자 | 사진_ 김상민

서울한강속편한내과 소화기전문 내과에서 건강관리까지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6651번을 타고 5분 거리. 대성유니드아파트 정류장에 내리니 오른쪽에 '서울한강속편한내과'가 한눈에 들어온다. 대림역과 7호선 신봉역도 걸어서 5~10분 거리이니 찾아오기가 편리하다. 신축건물인 신풍플라자 3층에 입주한 서울한강속편한내과는 300평 규모의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시스템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친절하게도 강동훈 원장의 캐리커처와 함께 인쇄물이 붙어있다.

“속편한내과는 전국 20여개 소화기전문 네트워크 병원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300여 평의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진료와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모든 종합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니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ㄷ자로 배치된 진료실, 검사실, 공단검진실, 종합검진실 등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원스톱 시스템도 입했다. 접수하는 안내데스크 직원들의 환한 미소는 친절함이 배어 있고, 강동훈 원장과 정문기 원장의 손님맞이도 오랜 의사생활 경험에서 풍기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돋보인다.

속편한내과는 소화기내과 전문 클리닉으로 명성이 높다.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비롯해 치료 내시경(용종제거, 궤양, 출혈, 지혈, 소화관 확장술 등)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초음파 검

사도 강화된 진료를 자랑한다. 이러한 치료를 위해 미세 병변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최신 내시경 검사장비(Fujinon 4400 시리즈) 6대를 갖추고 있다. 또 내시경 전용세척기 2대를 보유,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교수역임 의사 2명 이상, 치료내시경 시술, 일정한 의료장비 등은 속편한내과 네트워크의 공통분모이다.

풍부한 경험 '믿음' 주는 병원

하지만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진단과 치료는 사람이 하는 것. 풍부한 경험의 전문의는 신뢰성을 더욱 높여준다. 서울한강속편한내과의 강동훈 원장은 속편한내과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로서 고려대의료원 소화기내과 전임의 출신으로, 미국 미시간 주립대 소화기센터 연구원과 가천의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부교수, 내시경실장, 인천속편한내과 원장을 역임했다. 풍부한 경험과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이력이다.

부설 MHI((Medibest Healthcare Institute)검진센터도 주목받고 있다. 이 센터는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암 검진은 물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질환의 '검사에서 치료까지'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종합검진은 의료진과 전문적인 건강관리 상담사가 환자의 병력, 가족력 등에 기초한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추천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면내시경 검사와 종합검진을 받고 회복이 필요한 환자는 건강 즉



안내데스크 직원들의 환한 미소는 친절함이 배어 있고, 환자를 맞이하는 강동훈 원장의 자세도 편안함과 안정감이 돋보인다.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할 수 있다. 서울한강속편한내과 직원들의 표정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을 먹고 당일 결과를 듣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검진 결과는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추후 추적 및 건강관리가 가능한 MHI검진센터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부모님 모시는 정성으로 환자 진료

앞서 지적했 듯 속편한내과는 현재 내과계로는 유일하게 전국 20여 곳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 원장들은 정기세미나를 통해 임상경험과 신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전국 속편한내과 네트워크의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이 서울한강속편한내과의 강동훈 원장이다. 강 원장의 의료철학은 한결 같다. “내 부모를 대하듯(치료할 때) 환자를 대할 것.”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서울한강속편한내과.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와 동네병원 처럼 편안한 서비스를 속편한내과에서 동시에 만나세요.” 가천의 대교수와 인천속편한내과 대표원장을 역임한 강 원장은 새롭게 등지를 튼 이곳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접수와 치료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직원의 모습.

MHI검진센터 '건강수명 10년 연장' 목표로

MHI(Medibest Healthcare Institute)검진센터는 '건강수명 10년 연장'을 목표로 환자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 MHI건강관리 시스템은 건강검진의 표준화와 고급화를 통해 전국적인, 병의원 검진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종합검진에서 질병의 치료와 건강관리까지 평생 주치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개념의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환자특성 파악 맞춤형 검진

왜 정기적인 종합검진을 받아야 할까?

우리나라 사람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사망률을 낮추고 각종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초기 증세가 없기에 방심하기 쉽지만 정기적인 종합검진만이 각종 성인병과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환자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중복검사에서 오는 불신, 금전적 부담 때문이다.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MHI 맞춤형 검진은 전문 건강상담사(헬스플래너)와 상담 후 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검진을 한다. 여기에는 환자의 가족력, 병력, 생활습관, 환경유전적 요인, 관심질환 등을 고려한다.

MHI검진센터는 '서울한강속편한내과'와 함께 현재 전국 5~6곳에

센터가 설립돼 첫 선을 보이고 있다. MHI의 첫 'M'은 메디베스트의 약자이다. 메디베스트는 의료인 진료의 업무관리를 위한 주식회사로 강동훈 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올 초부터 MHI검진센터 론칭을 위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강 원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강 원장은 소화기 내과 단일 종목만으로는 폭넓은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림동이 위치한 영등포구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 다수가 만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환자가 많은 편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측면에 집중해야 할 이유이다. 또 다른 이유는 주민들의 욕구이다. 환자들로 북적대는 대학병원에서 예약과 치료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수준의, 아니 더 나은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시스템

"MHI검진센터는 비전문의가 아닌 풍부한 경험의 전문의가 내시경, 초음파 진단을 해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MHI검진센터를 맡고 있는 정문기 원장의 설명. "따라서 환자가 검사를 위해 여러 곳을 가는 번거로움도 이곳에는 없으며 환자들이 검사에서 혹 등이 발견되었을 때 당일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MHI검진센터의 서비스의 또 다른 특징은 인터넷을 통한 검진예약,

MHI 맞춤형검진 맛보기

MHI 검진센터는 검사받는 사람의 가족력, 병력, 생활습관, 환경 유전적 요인, 관심 질환 등을 고려해 전문 헬스플래너와 상담 후 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검진을 시행한다.

검사받는 사람의 특징	필요한 맞춤검사
① 60세 남자(고령의 남자는 전립선암 위험 증가)	① 전립선암 검사 및 전립선 초음파 추가
② 부모님과 형제가 췌장암으로 사망	② 췌장암 조기 진단을 위한 췌장 CT 추가
③ 흡연(+), 음주(-)	③ 폐암 정밀 검사를 위한 저용량 폐CT 추가
④ 20년 전부터 고혈압/당뇨 치료 중	④ 고혈압 및 당뇨병의 혈관 합병증과 뇌졸중 위험 등에 대한 검사로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 검사, 동맥경화 맥파기, 뇌혈류 측정기 심장초음파, 뇌혈관촬영 CT/MRI 등 추가
⑤ 2년 전 대장용종 제거 치료	⑤ 대장암 예방을 위한 대장내시경 추가
⑥ 환자 본인은 최근 노화 및 성기능 장애에 대해 관심이 많음	⑥ 항노화 치료를 위한 성장호르몬 및 남성호르몬에 대한 검사 추가...

결과조회, 온라인 주치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위해 지금 준비 작업을 마치고 있으며, 웹 페이지는 7월 중 만들어 질 예정이다.

편하고 친절한 서비스

환자의 만족은 결코 큰 규모에서 오지 않는다. 많은 환자들로 붐비는 대형병원보다 동네병원에서 편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한 주민의 말이다. “사실 남편은 대학병원 가자고 했지만, 차트를 들고 이곳저곳 찾아다녀야 하는 대학병원보다 이곳이 믿음도 가고 친절하니, 한결 나은 것 같아요.”

MHI검진센터는 속편한내과 부설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속편한내과와는 원-원 관계이지만 별개의 개념으로 독립성을 띄고 있다. MHI검진센터는 조만간 50~100여 곳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에만 20여 곳이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향후 보험상품 개발 등 의료시장 개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속편한내과 외개 네트워크만이 아닌 다른 병의원에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

MHI검진센터의
원스톱검진서비스



혈압검사



체지방측정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내시경 검사



간초음파 검사

이외 안저 검사, 안압 검사, 동맥경화 검사, 위·대장 조영술, 부인과 암 검진, 유방촬영 검사 등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강동훈

원장 / 소화기내과 전문의

강동훈 원장은 반백의 머리에 푸근한 인상이다. 전국 21개 속편한내과 네트워크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인천에서 서울로, 그것도 영등포구 대림동에 새 등지를 튼 이유는 뭘까?

“서울한강점은 전국 네트워크인 속편한내과의 21번째 지점이 됩니다. 속편한내과의 중심에서서 그간 수평적 관계라 통일화가 부족한 네트워크를 전국단위로 묶고 싶습니다.”

환자 · 직원 · 의사의 삼위일체를 꿈꾸다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서울한강속편한내과는 검진과 치료를 연계하는 애프터 케어(사후 치료)의 모범을 만들고 싶은 것. “이 지역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 환자가 많아요. 소화기만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지역에 밀착해 건강관리 측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밀착을 위해 강 원장은 개원축하 화환대신 쌀을 받아 영등포구 푸드마켓에 2톤의 쌀을, 그 외 단체에 1톤의 쌀을 기증했다. 호응이 좋아, 여력만 된다면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사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걸림돌도 없지 않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 곳에 들어왔지만 인근 병원에서 하필이면 이곳이냐며 불멘소리를 할 때는 괴롭다. 내 환자를 빼앗아가는 것 같으니 달가울 리는 없을 터. 하지만 강 원장은 특유의 여유롭고 넉넉한 웃음을 짓는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요. 서로 공존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 원장은 지역 병원 네트워크 형성에도 관심이 높다. 네 환자, 내 환자 구분 없이 의료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사 공간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한 이유도 이와 같다.

환자와 의사 ‘믿음’ 가장 중요

서울한강속편한내과 장비와 시설은 다른 병원에 견줘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설명을 부탁하자 강 원장의 답변이 의외다. “사실 이곳저곳의 장비들은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기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최신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걸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 못하는 목수가 연장 탓 한다고나 할까? 중요한 것은 그 장비를 다루는 의사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라는 말은 기자의 질문에 돌아온 현답이었다.

진료할 때 환자와 의사 사이의 ‘믿음’ 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 원장이다. “환자들이 요즘은 검사를 정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내시경을 원하지만 진료를 하다보면 간암 증세가 의심돼 초음파 검사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단편적 지식에 의존해 병원과 의사를 믿지 않고, 병원은 돈 벌려는 곳으로만 인식하기도 하지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내시경을 할 때 환자는 괴롭다. 입 속으로 스멀스멀 들어가는 긴 호스, 구역질에 토하는 경우가 예사다. 그렇더라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하려면 넓게 열어서 면밀히 봐야 한다. 그래야 충실한 검사가 된다. “체대로 검사하지 않으려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대장내시경 후장에 혹이 있어 혹을 떼 환자였다. 두 달 동안 나머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다시 속편한내과에서 장 검사를 하니 대장암이었다.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전의 검사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해줬어야 하고,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한다. 믿음을 중요시하는 때문일까? 인터뷰 중에도 인천에서 찾아오는 환자를 맞이하러 강 원장은 잠깐씩 자리를 비웠다.

다정다감한 원장님 ‘짱’

강 원장은 일 욕심이 많아 끊임없이 이 일, 저 일 벌이는 것을 좋아한다. 덕분에 마무리하는 후배인 정문기 원장이 맡는다. 강 원장은 정 원장의 6년 선배로서 대학 때부터 인연을 맺어 오랜 세월 서로의 신뢰가 남다르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고 행동할 수 있는 찰떡궁합인 것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강 원장을 따라 온 직원들도 절반에 이른다. 모두가 강 원장의 인복이다. 왜 인천에서 멀리 서울까지 강 원장을 따라 왔냐고 직원에게 물었다. 13년을 같이 일한 순간 호사의 귀뜸이다. “의사답지 않게(?) 다정다감하고 작은 것도 잘 챙기시죠. 말투가 부드럽고 인간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짓곳은 질문을 또 했다. 원장님이 공부가 취미이신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느냐고. “교육이 많은 건 직원들이 앞으로 다른 길을 많이 열어주는 거잖아요.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원장님이지만 직원들 앞에서 못 추는 춤도 열심히 추고 노래도, 유머도 잘하세요.”

내년 봄 의사 5명을 두고, 전국 20여 곳의 MHI검진센터를 두겠다는 단기목표와 5년내 맞춤형 검진센터를 10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장기목표를 잡고 있는 강 원장. 그는 환자와 직원, 의사가 ‘믿음’ 속에 삼위일체가 되어야 훌륭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는다. 남들이 벤치마킹하는 서울한강속편한내과를 만들기 위해 강 원장의 하루하루는 분주하다.

“종합검진, 내일로 미루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늦게 알게 된다

몸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가 검사를 하면, 이미 많이 진행되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흔한 암이나 성인병은 소리 없이 찾아와 그 존재를 알게 될 때는 이미 치료시기를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기적인 검진만이 초기에 질병을 찾거나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위암을 예로 들면, 위암이 발생하고 일년 내에 암세포를 제거하면 완치가 가능한 상태가 조기 위암이다. 2년이 지나면 절반은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3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암이 진행되어 결국은 그 암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

일년에 한 번 종합 검진을 받는 것이 경제적이다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비용만 필요하기에 많아야 200만 원이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면 암으로 사망하게 될 뿐 아니라 수술, 항암치료로 수천만 원이 든다.

30~40만원 정도씩 매년 종합검진을 받아도 40~70세까지 경비는 900~1200만 원 정도이다.

종합검진을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종합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종합 판정이다. 이 검사와 판정을 잘 할 수 있는 센터가 가장 좋다. 피검사, 방사선 촬영, 각종 기능 검사 등은 기기로 검사하는 것이어서 그 차이는 별로 없다.

대형병원의 종합검진은?

대형병원 검진센터는 대기 환자가 많고 복잡한 진료과로 인해 종합검진시 환자들이 여러 번 왔다갔다 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환자들이 경험 많은 임상전문의를에게 검사와 진료를 보려면 최소 1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속편한내과의 종합검진은 믿을 수 있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원장들이 직접 성심 성의껏 시술하고 판정한다. 검사의 질적인 문제를 따지면 유명 대형병원 종합검진센터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다. 내시경도 현재 나온 내시경 기기 중 첨단이다.